

# 梅泉 黃玟의 <和小川論詩六絶> 研究<sup>1)</sup>

金晋郁<sup>2)</sup>

## 目次

1. 序論
2. <和小川論詩六絶>의 創作 背景
3. <和小川論詩六絶>에 나타난 梅泉 詩論
4. 結論

### <국문초록>

梅泉은 매우 뛰어난 시인이자, 비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론을 구체적으로 개진한 전문적著述이나 체계적 기술을 남기지 않았다. 梅泉의 문학관은 중국 시인 및 우리나라 시인을 논하면서, 또는 다른 시집의 序文이나 跋文 그리고 書簡 중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梅泉의 詩論을 엿볼 수 있는 <和小川論詩六絶>에 대한 이해는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梅泉은 자신의 詩論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 한 것이 크게 세 번 있었다. 그 중 첫 번째 작품은 31세 때인 1885년에 지은 <論詩雜絶> 14首이다. 일반적으로 <論詩雜絶>로 불리지는 이 작품의 정식題名은 <丁掾日宅寄七絶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絶以謝>이다. <論詩雜絶>은 중국 시인들에 대한 梅泉의 평가이다. 작품에는 총 48인의 시인이 學論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和小川論詩六絶>이다. 梅泉은 1895년 을미년, 41세가 되던 해에 <和小川論詩六絶>을 지었다. <和小川論詩六絶>은 6수로 된 작품으로 중국 시인들에 대한 梅泉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詩論을 드러낸 작품이다. 세 번째로는 53세 때 작품인 <讀國朝諸家詩> 14수이다.

<和小川論詩六絶>이 창작된 1895년은 梅泉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활동을 하던 시기이자, 古詩에의 경도가 나타나던 시기였다. 또한 <和小川論詩六絶>의 대상이었던 小川과 梅泉은 忘年之友였으며, 小川은 시재가 뛰어난 시인으로 唐詩를 숭상하였으며 詩風이 平易, 醇正, 典實하였다.

<和小川論詩六絶>에는 梅泉의 문학관, 시론이 깃들여 있다. 梅泉은 시인은 그 기상이 높아야 하고, 그 性情에 따라 개성 있는 시를 써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作詩 방법론에 있어서 修飾과 彫琢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詩語의 중요성과 시인이라면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함을 詩化하여 <和小川論詩六絶>을 창작하였다는 것을 밝혔다.

1)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한국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KRF-2007-361-AM0015)

2) 순천대학교 HK연구교수.

주제어 : 梅泉, 黃玿, 和小川論詩六絶, 論詩雜絶, 讀國朝諸家詩, 王小川, 梅泉 詩論, 梅泉 論詩.

## 1. 序論

구한말 애국시인이자, 역사가였던 梅泉에 대한 연구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성과가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매천 문학에 대한 총체적 접근<sup>3)</sup>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개별 작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매천의 문학관, 시론을 <和小川論詩六絶>을 통해 고찰하는 것이다. 물론 특정 작품에 드러난 문학관을 그 시인의 문학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針小棒大임이 분명하다. 매천의 문학관은 여러 선학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논의하였고, 여기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매천의 문학관을 <和小川論詩六絶>을 통하여 보론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梅泉은 매우 뛰어난 시인이자, 비평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학론을 구체적으로 개진한 전문적 저술이나 체계적 기술을 남기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다른 여타의 시인과 비교해 보았을 때 별반 특이한 것이나 이상할 것이 없다. 시인의 문학관은 작품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매천의 문학관 역시 그의 작품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매천은 특정 작품에서 자신의 시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시 창작의 본연적 목적에 벗어나 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낸 작품이나, 글들을 남기고 있다. 중국 시인<sup>4)</sup> 및 國祖의 諸家 詩人<sup>5)</sup>을 논하면서, 또는 다른 시집의 序文이나 跋文<sup>6)</sup> 그리고 書簡<sup>7)</sup> 중에 군데군데 산견되고 있다.<sup>8)</sup> 그러므로 매천의 시론을 엿볼 수 있는 <和小川論詩六絶>에 대한 이해는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梅泉은 자신의 시론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 한 것이 크게 세 번 있었다.<sup>9)</sup> 그 중 첫 번째 작품은 31세 때인 1885년에 지은 <論詩雜絶> 14수이다. 일반적으로 <論詩雜絶>로 불리지는 이 작품의 정식 題名은 <丁掾日宅寄七絶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絶以謝><sup>10)</sup>이다. <論詩雜絶>에는 중국 시인들에 대한 매천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작품에는 총 48인의 중국 시인이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和小川論詩六絶>이다. 매천은 1895년 을미년, 41세가 되던 해에 <和小川論詩六絶>을 지었다. <和小川論詩六絶>은 6수로 된 작품으로 중국 시인들에 대한 매천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詩論을 드러낸 작품이다. 첫 수 아래에 余嘗好讀宋詩而不屑晚唐 小川不以爲然故 又申前意<sup>11)</sup>라는 注가 붙어 있다. 세 번째로는

3)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李秉岐, 『梅泉詩 研究』, 1995, 보고서.

尹景喜, 「黃玿 詩文學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90.

朴金奎, 「梅泉黃玿의 『論詩絶句』 研究」, 又石大 博士論文, 1995.

황수경, 「梅泉 黃玿의 詩文學 研究」, 2006, 朝鮮大 博士論文, 2006.

4) 黃玿, 『梅泉集』 卷一, <丁掾日宅寄七絶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絶以謝>.

5) 黃玿, 『梅泉集』 卷四, <讀國朝諸家詩>.

6) 黃玿, 『梅泉集』 卷四, <李石亭壽序>.

黃玿, 『梅泉集』 卷四, <詩集自序>.

黃玿, 『黃玿全集』, <題小川詩卷後>.

7) 黃玿, 『黃玿全集』, <答李石亭書>.

8) 尹景喜, 「黃玿 詩文學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90, 參照.

朴金奎, 「梅泉黃玿의 『論詩絶句』 研究」, 又石大 博士論文, 1995, 參照.

9) 詩作 속에서 단편적으로 그의 詩論이 드러나는 경우는 왕왕 있었으나, 論詩 자체를 위한 작품은 3제 34수가 있었다.

10) 黃玿, 『梅泉集』 卷一.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論詩雜絶>로 사용하고자 한다.

53세 때 작품인 <讀國朝諸家詩><sup>12)</sup> 14수이다. <讀國朝諸家詩>는 估畢齋에서 金昌翁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名家 14인에 대한 매천의 평가이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세 작품은 모두 七言絶句<sup>13)</sup>로 창작되었으며, 대략 10년을 주기로 작품화 되었다. <論詩雜絶>과 <和小川論詩六絶> 和答詩라는 형식, 中國 詩人에 대한 평을 통한 論詩라는 공통점을 갖추었고, <論詩雜絶>과 <讀國朝諸家詩>는 14수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점과 시인에 대한 論評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sup>14)</sup>

세 작품 중 梅泉의 시론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和小川論詩六絶>이다. <論詩雜絶>은 작품에서 거론되는 인물들이 워낙 많고,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讀國朝諸家詩>는 估畢齋에서 金昌翁에 이르기까지 조선의 名家들에 대한 평가이다. 그러므로 시인에 대한 好惡를 짐작할 순 있지만, 梅泉의 詩論을 파악하는 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논문에서는 <和小川論詩六絶>을 통한 梅泉의 詩論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선학들의 연구 성과와 相互 補足を 이루면서, 매천 문학에 대한 정치한 이해에 기여할 것이다.

## 2. <和小川論詩六絶>의 創作 背景

梅泉의 <和小川論詩六絶>은 매천이 41세가 되던 乙未年에 王小川과 論詩를 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을 보다 정치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매천에게 1895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와 王小川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梅泉은 38세가 되던 해인 1892년 6월 28일에 부친상을 당하고 詩作 활동을 폐하였다. 이후 삼년상을 마치고 1895년 4월 20일에 다시 시를 쓰기 시작했다. 매천이 삼년상을 마치고 처음 쓴 <四月二十日夜五鳳山塾作><sup>15)</sup>에는 다음과 같은 自註<sup>16)</sup>가 붙어 있다.

임신년 유월에 부친이 돌아가셨고 이듬해 이월에 모친이 돌아가셔서 **줄곧 시를 짓지 않았는데** 감히 예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마음을 흔들고 살을 벗기는 듯 하였고, 세상사가 시끄러워 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던 듯하다. 이 때 禪祭가 이미 지나 오봉산을 방문했는데 글방친구가 중용하고 또 唐詩에 비적의 騷擾를 겪었기에 목도한 현실에 유감이 있어 멍하니 붓을 들었다.

11) 黃玿, 『梅泉集』 卷一, <和小川論詩六絶>. 余嘗好讀宋詩而不屑晚唐 小川不以爲然故 又申前意 “나는 일찍이 송시 읽기를 좋아하고, 晚唐詩를 낮게 보지도 않았다. 小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에 예전의 생각을 거듭 밝힌다.”

12) 黃玿, 『梅泉集』 卷四, <讀國朝諸家詩>.

13) 拙稿, 『苟安室新稿』 研究, 『漢文學報』 제23집, 2010, 우리한문학회. 梅泉詩에서 七言絶句는 그 비중이 27%로 나타났다.

14) 拙稿, 『傳統과 近代,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點 <園植十五咏> 研究』, 『古詩歌 研究』 제24집, 2009, 韓國古詩歌文學會. ‘梅泉의 생애는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1886년 구례 만수동으로 이거 하기 전과 둘째, 1886년부터 1902년까지 구례 만수동에서 구안실을 짓고 칩거하던 시기와 셋째, 1902년에 구례 만수동에서 梅泉祠가 있는 월곡으로 이주하여 1910년 절명시를 짓고 자결하기까지이다. 이 세 시기에 따라 梅泉의 역사 의식과 민족의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그의 문학 세계 역시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論詩雜絶>은 1기에 해당하는 구안실 칩거 바로 전년에, <和小川論詩六絶>은 구안실에서, <讀國朝諸家詩>는 3기에 해당하는 월곡 이주 후 창작되었다.

15) 黃玿, 『梅泉集』 卷一, <四月二十日夜五鳳山塾作>. 莪蒿滿目恨難窮 桐竹居然廓太空/ 敢撤祥琴留日月 倦將希瑟答春風/ 眼青巖壑耕樵侶 髮白江湖戰伐中/ 入夜村燈多笑語 幾回恩詔下山東

16) 黃玿, 『梅泉集』 卷一, <四月二十日夜五鳳山塾作>. 余以壬辰六月丁憂 至明年二月丁內艱 因廢詩不作 非敢遵禮防 盖喪憂震剝 人事繆輻四月二十日夜五鳳山塾作 無暇乎詩也 至是禪期已經 客于五鳳山中 被塾友懲誦 時又經匪擾 觸目有感 悵然命筆

梅泉은 평생 2,000여수가 넘는 다량의 시를 창작한 작가이다. 그런데 <和小川論詩六絶>을 짓던 41세 직전에 부모상이 겹치면서 만 3년여 동안 시작 활동을 못하였다. 매천은 ‘세상사가 시끄러워 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던 듯하다.’ 하고 말을 했지만, 정작 시작 활동을 폐한 것은 ‘예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바로 이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표현은 역설적 표현으로 매천은 禮法에 따라 詩作 활동을 멈춘 것이다.

시인이었던 매천은 비록 시작 활동을 못하였지만 시에 대한 고민조차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梅泉의 시세계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추론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약간의 변화를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매천은 22세 때<sup>17)</sup>부터 시를 짓기 시작하여 죽는날까지 시작 활동을 하였으니, 부모상을 당한 3년을 빼더라도 31년 동안 시작 활동을 하였다. 평생 시를 지었던 매천이 가장 많은 시를 창작한 시기는 1895년 乙未年이다.

매천은 을미년에 상해본 『梅泉集』에 수록된 작품만을 놓고 봤을 때, 89수를 지었다. 상해본에 수록된 전체 작품 수가 839수이니 11%에 해당한다. 첫 작품이 4월 20일이니 대략 8개월 동안 시를 쏟아냈다고 본다. 작품의 질에 있어서도 우수하다. <和小川論詩六絶>, <種菸謠<sup>18)</sup>>, <觀移秧>, <五峯石壁>, <祭農神辭> 등은 많은 선학들이 언급하고 있는 매천의 대표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和小川論詩六絶>이 창작된 1895년은 매천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활동을 하던 시기라는 특색을 갖는다.

두 번째 특색은 古詩에의 경도이다.

<표 1 : 을미년(1895년) 梅泉 시 형식>

시형	문체	작품수	비율
고체시	약부체	2	28%
	오언古詩	5	
	칠언古詩	14	
	육언절구	4	
근체시	오언절구	2	72%
	오언율시	10	
	七言絶句	27	
	칠언율시	25	
총계		89	100%

梅泉詩의 형식<sup>19)</sup>을 고찰해보면 古詩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0%정도이다. 칠언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작품에서 72% 정도로 압도적이다. 근체시에서 상대적으로 오언시 사용이 적었던 것이다. 칠언시에서는 칠언율시가 칠언절구보다 2배 가량 많으며, 古詩의 경우는 오언고시가 칠언고시보다 2배가량 많다. 이러한 梅泉詩의 형식과 달리 1895년에는 칠언절구를 가장 많이 지었으며, 무엇보다도 古詩의 비중이 무척 높다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和小川論詩六絶>이 창작되었던 때를 중심으로 古詩 창작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이상을 정리하면 <和小川論詩六絶>이 창작된 1895년은 매천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 활동을 하던 시기이자, 古詩에의 경도가 나타나던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아울러 매천의 역사의식을 살필 수 있는 『梅泉野錄』을 집필하기 시작한 해<sup>20)</sup>이기도 하다.

17) 더 이른 시기에 지은 작품도 있음직한데, 현재 전하는 작품은 22세 때 지은 <因遣悶感物 二首>(黃玿, 『黃玿全集』)이다.

18) 閔丙秀, 『韓國漢詩史』, 태학사, 1996. 閔丙秀는 이 작품을 梅泉의 대표작의 하나로 보았다.

19) 拙稿, 『苟安室新稿』 研究, 『漢文學報』 제23집, 2010, 우리한문학회.

매천과 왕씨 일가와의 관계는 여러 선학들이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그 결과 매천의 스승으로 王錫輔를 이야기하는 것이 벌써 일반화된 것 같다. 梅泉이 川社에게 직접 수학한 사실은 年譜에서 찾아볼 수 있으니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천이 11세였을 때이니, 문학에 대한 수업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行狀을 보면 매천은 어려서부터 과거를 준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매천이 14세에 川社가卒하였으니, 그 영향관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본다.<sup>21)</sup>

매천과 왕씨 집안의 본격적인 교유는 매천이 구례로 이주한 32세 때 부터이다. 奇泰完은 매천이 광양에서 구례로 이주한 이유가 왕씨 일문과 함께 여생을 보내기 위해서였다고 말하였다.<sup>22)</sup> 그러한 매천이 왕씨 일문 중 가장 가까이 지낸 이는 小川 왕사찬이다. 小川은 1846년에 태어났으니, 매천보다 9살 연상이다. 매천은 小川의 시재를 높게 평가하였고, 小川을 제재로 한 작품도 많이 남기었다. 특히 매천이 46세 때 지은 <歲暮懷人諸作><sup>23)</sup> 20수에 왕씨 일가는 유일하게 小川을 거론하고 있다. 小川에 대한 매천의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歲暮懷人諸作 十六首>는 五言 36句의 長篇古詩이다.

時月不見我	한달만 보지 못하면
輒復形吟咏	번번이 시를 읊으며 나타났네
平生嗜癩癬	평생 창가 <sup>24)</sup> 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으니
痴孰與君競	어리석음을 그 누가 당신과 다투겠는가
憶我舞勺年	내가 13세 <sup>25)</sup> 에
君髭已滿鏡	그대의 콧수염은 이미 얼굴에 가득했네
追隨三紀餘	36년여를 쫓아다니며
差差雁行并	기러기 항렬같이 나란히 다녔네
交在師友間	교제는 스승과 친구 사이에 있었고
情摯頗簡敬	우정은 자못 간결하면서도 공경함을 견지했네
中略	
最是枵腹中	극도로 가난할 때에도
如雲意氣盛	구름처럼 의기는 왕성하였네
每當劇談時	매번 시대를 극론할 때마다
奮來髯逾勁	흥분하여 머릿발을 곤두세웠네
啾嘈訶晚宋	큰 소리로 만송을 책망하고
贈媿局長慶	곡진하게 당과 나란히 하였네
中略	
哦哦捲席門	시나 읊으면서 문간에 앉아
笑指玉山映	웃으면서 옥산이 빛남을 가리키네
不省妻兒嘖	처자식이 성내는 것 아랑곳하지 않고
吾以詩爲命	시 짓는 것을 운명으로 삼네

20) 梅泉은 『梅泉野錄』을 1894년부터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21) 黃玿, 『黃玿全集』, <川師詩集序>. 然長於律詩 而無古體 低回唐宋 而無韓魏騷選之遺意.(율시에는 뛰어났지만 고체는 없다. 당 송에만 머물렀고 한, 위 시선의 유의는 없다.) 梅泉의 川社에 대한 평이다. 川社의 詩世界가 梅泉과 무척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2)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17면.

23) 黃玿, 『梅泉集』 卷三.

24) 『駢志』. 南史 劉邕 性嗜瘡癩 以味似鰻魚 嘗詣孟靈休 靈休先患炙瘡 瘡痂落床上 邕取食之. 靈休 大驚 邕答曰 性之所嗜 靈休 瘡痂未落者 悉褫取以飴邕.

25) 『禮記集說』. 人蓋男子十三 學樂誦詩舞勺 成童舞象.

매천은 ‘時月不見我 輒復形吟咏’라며 小川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가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며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또한 ‘追隨三紀餘 差差雁行并’라며 小川과의 사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천이 小川을 처음 만났을 때가 11세이고, 이 작품을 지은 시기가 46세 때이니 36여년을 함께 했다는 표현은 조금의 가감도 없는 것이다. 그 사귀의 양상이 ‘交在師友間 情摯頗簡敬’이라 하였으니 小川에 대한 매천의 인식을 알 수 있다.

梅泉詩波를 연구하였던 김정환은 “梅泉詩波의 문학 활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들로는 유제양, 이정직, 왕사찬, 그리고 김택영을 들 수 있다.”<sup>27)</sup>라고 하고 이 네 사람을 각각 지면을 할애하여 상술하였다. 小川에 대해서는 “왕사찬은 매천보다 9세 연상이지만 망년지우로 지냈다. 매번 함께 시문을 논하고 운조루에 갈 때도 함께 하는 가장 친한 벗이었다.”<sup>28)</sup>라고 梅泉과 小川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매천은 <歲暮懷人諸作 十六首>을 통하여 小川을 잘 묘사하고 있다. 小川과 자신과의 사귀, 小川이 가난했지만 의기가 높았고, 시대에 대해서 極論할 때는 머릿발을 곤두세웠으나, 평생 詩人일 수밖에 없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晚宋을 責望하고 唐과 함께 하였던 小川의 詩風까지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小川의 시풍에 대하여 막역한 친우였던 石亭의 말은 <和小川論詩六絶>의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한다.

오늘날 세상의 시에 숨씨가 있는 자는 한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홀로 小川이라고 한 것은 대개 小川의 시가 평이하고 순정하고 진실하기 때문이다. 오직 평이하기에 기이한 숨씨를 추구한 것이 없고 오직 순정하기에 성급하거나 방자하지 않으며, 진거에 충실하기에 부박한 소리나 지나친 기색이 멀어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근고의 의미이니 이와 같아야 시대의 변화를 면할 수가 있다.<sup>29)</sup>

이상을 정리하면 <和小川論詩六絶>이 창작된 1895년은 매천이 가장 왕성하게 詩作 활동을 하던 시기이자, 古詩에의 경도가 나타났던 시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和小川論詩六絶>의 대상이었던 小川과 梅泉은 망년지우였으며, 小川은 시재가 뛰어난 시인으로 唐詩를 崇尚하였다는 사실과 시풍이 平易, 醇正, 典實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천과 소천은 막역한 사이였으며, 둘 다 당대의 뛰어난 시인이었으나 시풍이 달랐다. 그러므로 시에 대한 많은 격론이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추론해 볼 수 있다. 거의 평생을 함께 한 망년지우였기에 법도를 넘어선 날선 공방도 없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나 아쉽게도 남겨진 글들이 없다. 그러므로 소천과의 논시인 <和小川論詩六絶>에 대한 고찰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 3. <和小川論詩六絶>에 나타난 梅泉 詩論

梅泉의 <和小川論詩六絶>은 매천의 시론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매천은 박학다식하였으며, 중국과 조선<sup>30)</sup>의 여러 시인들에 대하여 두루 통섭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식을 배경으로 작품을

26) 黃玆, 『梅泉集』 卷三.

27) 김정환, 『梅泉詩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52면.

28) 김정환, 『梅泉詩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63면.

29) 李定稷, 『石亭李定稷遺稿』, 金堤文化院, 2001, 130면. 余獨於小川云爾 蓋小川之詩 平易耳 醇正耳 典實耳 惟平易也 無奇巧 惟醇正也 不躁肆 惟典實也 浮聲溢色 斯遠焉 此余所謂近古也 然後可以勉時邊.

통하여 시와 시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작품이 많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31세 때 작품인 <丁掾日宅寄七絕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絕以謝> 14수와 41세 때 작품인 <和小川論詩六絕> 6수, 그리고 53세 때 작품인 <讀國朝諸家詩><sup>31)</sup> 14수이다.

梅泉의 <和小川論詩六絕>은 칠언절구 6수로 詩題에 보이듯이 小川의 詩論에 대한 자신의 詩論을 개진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들은 시적 형상화라든지 하는 미학적 미감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작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천의 대표작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시에 대한 전문적 저술을 남기지 않은 매천의 시론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매천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詩論을 이 작품을 통하여 분명히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는 매천의 시세계를 파악하는데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和小川論詩六絕>에 대한 문학적 해석은 미루고자 한다. 典據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통하여 梅泉의 詩論觀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의의 목적이다. <和小川論詩六絕>은 6수로 된 연작시이면서, 각 작품의 개별성이 워낙 강해 전체 작품의 구조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작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年代誰能辨室堂	연대로써 누가 능히 우열을 가리겠는가
宋人高處欲無唐	宋人の 높은 경지는 唐人也 넘보지 못한다네
君看蘇陸凌霄氣	그대는 보시오 蘇軾과 육유 <sup>32)</sup> 의 드높은 氣象
肯許曹羅與頡頏	조송 <sup>33)</sup> .나은 <sup>34)</sup> 이 필적할 수 있겠는가

<和小川論詩六絕 一首><sup>35)</sup>

이 작품은 매천이 시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시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매천은 蘇軾과 陸游를 대단히 追承하고 學詩의 대상<sup>36)</sup>으로 삼았다. 奇泰完은 梅泉詩의 修鍊과 影響關係를 밝히면서 古詩에서 蘇軾의 影響<sup>37)</sup>과 近體詩에서 陸游의 影響<sup>38)</sup>에 대하여 詳述하였다. 蘇軾에 대한 梅泉의 인식은 <題東坡集><sup>39)</sup>과 <論詩雜絕>에, 陸游에 대한 인식은 <讀劍南集><sup>40)</sup>과 <論詩雜絕>에 잘 드러나 있다. 특히 梅泉詩에 있어서 陸游의 影響은 여러 선학들이 밝혔으나, 무엇보다도 매천을 잘 알고 동시대를 살았던 朴文鎬나 金澤榮의 평가<sup>41)</sup>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0) 王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31) 黃玆, 『梅泉集』 卷四.

32) 陸游, 중국 남송 때의 문인. 자는 務觀, 호는 放翁. 많은 산문과 1만여 편의 시를 남겼다. 詩人으로서 출발하여 간단하고 솔직한 표현, 사실주의적인 묘사로 당시 유행하던 江西詩派의 고상하고 암시적인 시풍과는 다른 시를 써서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형식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서 古體詩를 많이 썼다. 그는 시에서 뜨거운 애국심을 표현하여 지금까지 愛國詩人으로 불린다. 저작으로 『劍南詩稿』가 있다.

33) 曹松, 唐 昭宗 때 사람으로 字는 夢徵이다. 價島(788~843)의 제자로 詩名을 떨쳤으며 光化(898)에 진사에 올라 교서랑을 지냈다. 同年同榜 5인이 모두 나이 70여 세를 살았기에 그때 사람들이 五老榜이라고 호를 불렀다.

34) 羅隱(833~909), 중국 당나라 말기의 詩人. 일찍이 과거에 낙방하여 불운하였으나, 절도사의 막료로 있는 동안에 진구에게 인정을 받아 중용되었다. 벼슬에 올라 著作佐郎·諫議大夫·給事中等이 되었다. 후일 朱全忠이 그의 인물을 아껴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어려서부터 文才가 있었으며, 특히 시에 뛰어나 이름이 높았다.

35) 黃玆, 『梅泉集』 卷一.

36) 梅泉은 차운시를 많이 창작하였는데, 梅泉의 차운시는 學詩의 방법론이었다. 蘇軾의 차운시는 12수, 陸游의 차운시는 72수를 남겼다.

37)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62면.

38)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78면.

39) 黃玆, 『黃玆全集』, 亞細亞文化社, 1978, 上 40에서 41면.

40) 黃玆, 『梅泉集』 卷三.

41)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88면.

이 작품의 끝에 다음과 같은 註釋이 붙어있다. “나는 일찍이 송시 읽기를 좋아하고, 晚唐詩를 낮게 보지도 않았다. 小川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에 예전의 생각을 거듭 밝힌다.”<sup>42)</sup> 이러한 주석이 오히려 이 작품의 독해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한다. 이 주석이 작품 해석을 唐詩보다는 송시를 曹松과 羅隱보다 蘇軾과 陸游가 뛰어났다는 比較論的 評價<sup>43)</sup>로 흐르게 하고 있다.

梅泉은 曹松의 <鍾陵野步><sup>44)</sup>에 차운시를 남기고 있으며, 羅隱은 崔致遠과의 교유 등으로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둘 다 불우한 삶 속에서 기상이 높은 시를 썼던 시인들이다. 특히 鬱憤과 批判意識을 담은 滑稽와 諷刺에 능했던 시인들이다. 매천은 曹松과 羅隱의 시에서 높은 기상을 호평하였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唐詩와 宋詩의 비교도 아니고, 曹松과 蘇軾의 비교도 아니다. 매천은 이 작품에서 曹松과 蘇軾의 기상을 비교한 것이다. 이 작품은 曹松과 羅隱의 氣象이 비록 뛰어나나 蘇軾과 陸游에는 미치지 못함을 말하고 있으며, 蘇軾과 陸游의 ‘凌霄氣’야말로 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매천은 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시의 氣象을 꼽은 것이다.

空山草木獸才名	공산의 초목처럼 재명을 싫어하지만
老去猶高袖裏衡	늙어갈수록 세평은 오히려 높아지네
從古擬倫難中窾	예로부터 견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李侯那得似陰鏗	이백이 어찌 음갱 <sup>45)</sup> 과 비슷할 수 있으리오

<和小川論詩六絕 二首><sup>46)</sup>

杜甫는 <與李十二白同尋范十隱居><sup>47)</sup>라는 작품의 서두에서 李侯有佳句, 往往似陰鏗<sup>48)</sup>라고 하여, 자칫 陰鏗의 시가 이백의 시보다 낫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한 영향이 이 작품 역시 이백과 陰鏗을 비교하는 시로, 나아가 이백이 陰鏗보다 훨씬 뛰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시로 오해할 여지를 만든 것이 사실이다.

매천은 시인으로서 陰鏗의 詩史的 위치를 높게 평가하였다.<sup>49)</sup> 그러나 여기서 매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백과 陰鏗의 비교가 아니라 각각의 性情을 이야기한 것이다. 梅泉이 性靈論者였는지는 아직 논의가 분분하다. 하지만 性靈論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sup>50)</sup> 이백과 陰鏗은 둘 다 천재 시인이었으며 여러모로 유사성을 많이 가진 시인이다.<sup>51)</sup> 두보는 이러한 유사성에 천

42) 黃玆, 『梅泉集』 卷一. 余嘗好讀宋詩而不屑晚唐小川不以為然故又申前意.

43) 이러한 해석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진의가 여기에 있지 않다는 점이다. 梅泉은 <李石亭壽序>(『梅泉全集』, 卷四)에서 ‘이백, 두보, 한유, 유종원의 미숙한 것은 조송, 나은, 조선생, 태암의 익숙한 것보다 못하다.(然李杜韓柳之未熟 不若曹羅樵蛻之熟)’라며, 曹松과 羅隱의 시 중에서도 李杜를 능가하는 작품이 있다고 曹松과 羅隱을 높게 평가하였다. 물론 이 글의 전체적 大概是 익숙함의 중요함을 설파하는 내용이나 梅泉이 가지고 있는 曹松과 羅隱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44) 曹松, <鍾陵野步>. 岡扉聊自啟, 信步出波邊/ 野火風吹闊, 春冰鶴啄穿/ 渚橋齊驛樹, 山鳥入公田/ 未創孤雲勢, 空思白閣年.

45) 陰鏗(510~570), 字 子堅 陳의 武威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史傳을 두루 섭렵하고 특히 오언시를 잘 지었는데 唐詩 사람들이 매우 소중히 여겼다. 진의 天嘉(560) 때 錄事參軍이 되어 <安樂宮賦>를 짓고 문명을 크게 떨치었다. 그로부터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많은 시를 지어 문집이 전한다. 그의 오언시는 唐의 이백, 두보가 모두 追崇하였다.

46) 黃玆, 『梅泉集』 卷一.

47) 杜甫, <與李十二白同尋范十隱居>. 李侯有佳句, 往往似陰鏗/ 餘亦東蒙客, 憐君如弟兄/ 醉眠秋共被, 攜手日同行/ 更想幽期處, 還尋北郭生/ 入門高興發, 侍立小童清/ 落景聞寒杵, 屯雲對古城/ 向來吟橘頌, 誰與討蓴羹/ 不願論簪笏, 悠悠滄海情.

48) 李侯有佳句, 往往似陰鏗. 이태백의 아름다운 짓구는 종종 음갱과 유사하네.

49) 黃玆, 『梅泉集』 卷一. <論詩雜絕> 三首에서도 陰鏗을 거론하고 있다.

50) 무엇보다도 梅泉의 自書인 <詩集自序>(黃玆, 『梅泉集』 卷四.)나 <答李石亭書>(黃玆, 『黃玆全集』)에 시 창작에 있어 性情의 중요성을 강조한 梅泉의 인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작을 하였다면, 매천은 그 差別性<sup>52)</sup>에 주목하여 性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품의 結句를 살펴보면 李侯 ‘那得似’ 陰鏗에는 李侯와 陰鏗이 같지 않다는 의미 이상이 담겨 있지 않다. 앞선 작품의 結句에서 표현인 ‘肯許’와는 전혀 다른 표현인 것이다.

매천은 이 작품을 통하여 시를 짓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개인의 性情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의를 조금 확대하면 法古의 시 창작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53)</sup> 매천은 이와 같이 이 작품을 통하여 性情, 性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좋은 시를 쓰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시, 자신이 쓸 수 있는 개성 있는 시를 써야함을 小川에게 설파하고 있다.

僮無斧鑿巧難施	工僮 <sup>54)</sup> 도 연장 없이 솜씨를 펴기 어려우며
赤手屠龍更有誰	맨 손으로 용 잡는 이 <sup>55)</sup> 또 있더나
唧枚過盡羊腸險	꼬불꼬불 험한 길을 다 지나야만
百戰戎車任汝之	백번 싸울 무기를 그대에게 맡긴다오

〈和小川論詩六絕 三首〉<sup>56)</sup>

輒把眞詮寄兔園	眞詮 <sup>57)</sup> 을 함부로 兔園 <sup>58)</sup> 으로 만들다니
截鯨剗兕待龍泉	고래·외뿔소를 잡으려면 용천검을 지녀야 한 것을
試看五石瓠無用	저 쓸모없다는 다섯 석의 바가지 <sup>59)</sup> 를 살펴보라
圓到剗方始恰圓	원만해지려면 모난 것을 깎아야만 비로소 원용해진다네

〈和小川論詩六絕 四首〉<sup>60)</sup>

매천의 〈和小川論詩六絕〉 6수 중, 이 두 작품에는 중국의 시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굳이 특정한 시인을 비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앞선 두 작품이 시 창작에 있어 氣象과 개성의 중요성을 논하였다면, 이 두 작품은 梅泉 詩論에서 벗어나 ‘和小川’의 시정이 詩化된 작품이다. 앞 서 살

51) 朴金奎, 『梅泉黃玿의 『論詩絕句』 研究』, 又石大 博士論文, 1995, 47면에서 48면.  
 52) 이백은 퇴고를 하지 않은 詩人으로 유명하다. 즉석에서 거침없이 시를 써 나가는 천재성을 보였다면, 음갱은 시구 하나 하나를 吟苦하였던 詩人이다.  
 53) 梅泉은 다른 글에서도 법고의 폐해를 말하였다. 〈答李石亭書〉(黃玿, 『黃玿全集』, 370면에서 372면.) 蓋世運推濫人文嬗變 生於其時者各因其所賦之才 而成一代之文 不必皆法古也. 中略. 惟不拘乎法而求以得其義 則其佳者自與法合. 대개 세운이 옮겨지면 인문이 변합니다.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각자 자기의 부여받은 재능에 따라서 한 시대의 문을 이룩하는 것이니 모두 법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략. 오직 법에 구속되지 않고 그 뜻을 터득함으로써 구한다면, 그 아름다운 것은 절로 법에 합치될 것입니다.  
 54) 僮, 황제 때 뛰어난 목수의 이름.  
 55) 莊子, 『莊子』, 〈列禦寇〉. 朱泮漫學屠龍於支離益 單鶩禽之家三年技成 而無所用其巧.(朱泮漫이 용을 잡는 법을 支離益에게 배웠는데, 천금의 가산을 탕진하여 삼년만에 배웠으나 그 기술을 사용할 데가 없었다.) 이 말은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사용처가 없으면 쓸모가 없다는 말이다.  
 56) 黃玿, 『梅泉集』 卷一.  
 57) 眞詮, 가장 진실한 뜻이나 道.  
 58) 兔園, 淺近한 서적을 지칭함.  
 59) 『莊子』, 〈逍遙遊〉. 惠子謂莊子曰魏王貽我大瓠之種, 我樹之成而實五石, 以盛水漿, 其堅不能自舉也, 剖之以爲瓢, 則瓠落無所容. 非不呶然大也, 吾爲其無用而掊之, 莊子曰.... 今子有五石之瓠, 何不慮以爲大樽而浮乎江湖, 而憂其瓠落無所用, 則夫子猶有蓬之心也夫.(혜자가 장자에게 말하기를 ‘위나라 왕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길래 나는 이를 심었더니 열매가 다섯 석이나 될 정도로 컸다네. 물을 담은 그릇으로 쓰면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고, 쪼개어 바가지로 쓸 경우 너무 얇아 담을 수가 없었다네. 크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쓸모없다고 여겨 부수어 버렸다네.’ 장자가 말하기를..... 지금 자네에게 다섯 석이나 되는 바가지가 있는데 어째서 그것으로 큰 배를 만들어 강호에 띄울 생각을 않고 알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다고 걱정하는가! 자네는 딱 막힌 사람이군.)  
 60) 黃玿, 『梅泉集』 卷一.

펴보았듯이 梅泉과 小川은 특별한 사이이다. 매천은 小川의 詩論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지만, 小川을 진정한 시우로 여겼기에 함께 공동시집을 출간하기도 하였다. 또한 小川의 시를 높게 평가하였다.<sup>61)</sup> 그럼에도 자주 시에 대하여 논쟁을 벌였고, 이 작품 역시 그러한 과정의 연장선에서 창작된 작품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먼저 세 번째 작품을 보면 결구의 ‘百戰戎車任汝之’는 세상에 우뚝 설 수 있는 무기이다. 시인에게 그것은 詩밖에 없다. 그렇다면 ‘百戰戎車任汝之’의 주체는 누구인가. 누가 세상과 싸워 항상 이길 무기를 준다는 말인가. 그것은 하늘 밖에 없다. 결국 이 작품은 ‘하늘이 小川에게 슬한 고난을 겪게 하는 것이 小川의 시를 더욱 성숙하게 하려는 뜻이다.’라며 小川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다. 小川은 梅泉과 달리 당대에도 현재에도 매천만큼 평가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小川을 慰撫하는 작품이다. 나아가 ‘위대한 시인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라는 일반론을 詩化하고 있기도 하다.

네 번째 작품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慰撫에서 나아가 小川에 대한 충고 역시 들어있다. 이 작품의 말미에 “王小川이 보내온 시에 ‘너무 천착한 곳이 없는 데 이르러야 원융한 시가 된다.’라고 한 것은 바로 내가 축하를 송상한 것을 기뻐한 것이다.”라는 本注<sup>62)</sup>가 붙어 있다. 그러므로 매천이 자신의 詩作法이 지나치게 奇驚을 추구한다는 것에 대한 小川의 힐난에 대하여 ‘너는 저 다섯 석의 바가지가 너무 커서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로만 알았지 無用의 大用을 모른다.’고 설교하는 내용이다.

梅泉은 이 작품에서 小川에게 修飾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시에 있어서 修飾의 중요함과 小川에게 가장 부족함 점이 이 修飾과 彫琢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小川은 晚唐을 추구하고, 李商隱<sup>63)</sup>을 私淑<sup>64)</sup>했기에 시가 화려하나 개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다. 결구의 ‘圓到利方始恰圓’는 작품 창작에 있어 修飾과 彫琢이 중요하다는 말로써,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에 修飾과 彫琢을 가해야지만 ‘무용이 대용이 된다.’라는 梅泉의 詩論을 피력하고 있다.

千秋讀杜競尋源	오랜 세월 두시 읽어 근원 찾느라 다투었지만
新解滄浪與後村	嚴滄浪 <sup>65)</sup> 劉後村 <sup>66)</sup> 만이 새로운 풀이 했다네
問渠底癖耽佳句	문노니 좋은 글귀 탐하는 걸 어찌 괴벽이라 하는가
語不驚人定不傳	驚人句가 아닌 것은 결코 전해질 수 없다네

〈和小川論詩六絕 五首〉<sup>67)</sup>

61) 黃玿, 『黃玿全集』, 〈題小川詩卷後〉. 梅泉은 〈題小川詩卷後〉에서 “우리들 선배 중에 근체를 잘한다고 일컬어지는 이가 혹 있다. 그러나 옛 것을 옳게 배웠다고 기릴만한 분은 小川이 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영남의 남과 성혜영, 호남의 이정직, 그리고 王小川을 당대의 최고 詩人이라 평하였다.

62) 黃玿, 『梅泉集』 卷一, 〈和小川論詩六絕 四首〉. 來詩曰到無鑿處是融圓蓋識余尙奇也.

63) 李商隱(812~858) 중국 당나라의 詩人. 자는 義山, 호는 玉谿生이다. 굴절이 많은 화려한 서정시를 썼다. 시집에 『李義山詩集』이 있다.

64) 黃玿, 『黃玿全集』, 〈題小川詩卷後〉. 小川 노인이 시를 공부한 지 40여년에 일찍이 하나하나 당을 본뜨는 것이 아니면서도 그 재성이 때로는 당과 가까웠다. 그가 당인을 논할 때는 으름으로 李商隱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이르기를, 그의 詩語는 정밀하고 뜻은 깊어서 중당과 만당 때의 여러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65) 滄浪, 중국 宋나라의 詩論家 嚴羽의 號. 字는 儀卿, 福建省 邵武 출생. 관직에 뜻을 두지 않고 일생동안 은자로서의 지조를 고집하였다. 각지를 유람하며 많은 승려·도사들과 교류하였다. 『滄浪詩話』는 宋代에 배출된 詩論 중에서 가장 뛰어난 체계를 정립한 詩論書로서 禪學의인 발상에 바탕을 두고, 시의 원리론적 溯向性이 강하였다. 때문에 시학이론의 구상력과 분석력에 매우 탁월하였다. 그는 미적 감흥을 시의 第一義로 삼았기 때문에 교양학문으로 간주한 唐詩의 江西詩派의 시풍을 비판하였다. 흥취를 얻기 위해서는 무아경에 들어가야 하며, 무아경은 李白·杜甫의 詩法을 터득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하는 흥취를 중시한 詩論이었다. 이는 청대 王士禎의 神韻說의 원류이기도 하다.

66) 劉克莊(1187~1269), 字는 潛夫, 號는 後村, 남송 蒲田(현 福建)사람이다. 벼슬이 龍圖閣學士에 이르렀고, 문집 『後村先生全集』이 있다.

이 작품의 本注<sup>68)</sup>에 “王小川이 보내온 시에 ‘그대에게 권하노니 남을 놀라게 하는 짓구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부기되어 있다. 매천은 이 말에 대하여 詩語의 중요성을 설파하여 위의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梅泉은 시에 있어서 세상을 놀라게 할 짓구의 중요성을 체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驚人句’를 짓지 못하면 氣象만으로도, 개성만으로도 ‘독자적인 시세계를 구축할 수는 없다.’라는 詩論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작품의 기구 ‘千秋讀杜競尋源’의 주체는 술한 詩人들이다. 두보 이래 수많은 詩人들이 두보를 추승했지만 오직 엄우와 유극장만이 두보를 제대로 해석했다는 이야기이다. 엄우와 유극장이 해석한 두시는 약간의 상대성이 있다. 엄우는 杜甫를 지극히 숭상<sup>69)</sup>하였지만, 유극장은 상대적으로 비판적 입장을 견지<sup>70)</sup>하였다. 그러나 엄우가 그의 詩論에서 가장 강조하였던 ‘妙悟’와 ‘入神’이나, 유극장의 詩論 핵심인 ‘活法’은 공히 시의 美感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시의 미감은 詩語에서 오기에 두보 역시 詩語에 그토록 천착했던 것<sup>71)</sup>이다.

好見蘇黃兩不孤	소동파황산곡 외롭지 않음이 보기 좋고
霸家長短晉爭吳	우열가림은 마치 진오의 싸움 같네
江西一變成南渡	강서시파 일변하여 남송 <sup>72)</sup> 의 제파 <sup>73)</sup> 이뤘으니
坦道何曾在石湖	평탄한 詩道가 어찌 범성대에게만 있으리오

〈和小川論詩六絕 六首〉<sup>74)</sup>

이 작품은 本注<sup>75)</sup>에 나와 있듯이 “小川이 보내온 시에 이르기를 ‘먼저 시의 평탄한 길을 쫓아 입문하려면 동파를 배우지 말고 석호의 시를 배워라.’”고 한 말에 대해 매천이 답변한 시다. 이 작품에 나오는 중국 시인은 소식, 황정건, 범석호 등 셋이다. 매천이 蘇軾에 경도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sup>76)</sup> 매천은 蘇軾에게서 호방함과 고풍준절의 정신을 배우고자 하였다.<sup>77)</sup> 매천은 소식을 學詩의 대

67) 黃玆, 『梅泉集』 卷一.

68) 黃玆, 『梅泉集』 卷一, 〈和小川論詩六絕 五首〉. 來詩有勸君莫作驚人語之句.

69) 嚴羽, 『滄浪詩話』, 〈詩辨〉. 少陵詩 憲章漢魏 而取材於六朝 至其自得之妙 則前輩所以集大成者也. 中略. 論詩以李杜爲準 挾天子以令諸侯也. 두보의 시는 漢, 魏의 시를 법도로 받들었고, 육조시에서는 재주를 취했고, 그가 스스로 터득한 묘치는 선배들의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중략. 이백과 두보를 표준으로 삼으면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격이다.

70) 朴奎奎, 「梅泉黃玆의 『論詩絕句』 研究」, 又石大 博士論文, 1995, 61면. 송대의 두보에 대한 성망은 극히 드높아서 누가 감히 의논조차 할 수 없는 절대적이었는데, 후존은 공공연히 두보를 譏評하고 나서서 엄우와 반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으니 참으로 대담한 논평이었다.

71) 『杜詩』, 〈江上值水如海勢聊短述〉. 爲人性僻耽佳句語不驚人死不休. 나의 성벽은 아름다운 짓구를 탐하여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시가 아니면 죽어도 쉬지 않는다.

72) 南渡, 晉 元帝와 宋 高宗 모두가 長江을 건너 남쪽으로 옮겨 도읍을 세웠기 때문에 南渡라 일컫는다. 宋 高宗 1년(1127)부터 南宋이라 일컫음.

73) 宋의 南渡 후 강서시파에 반기를 든 江湖派(劉克莊, 戴復古)와 새로운 격식의 시를 지은 ‘南宋四大家’(陸游, 楊萬里, 范成大, 尤袤)와 淸精圓秀하기를 지향하면서 琢鍊을 위주로 하는 ‘四靈派’(徐照, 徐璣, 趙師秀, 翁卷)와 姜夔(1155~1221)를 중심으로 한 ‘格律派’ 등이 있음.

74) 黃玆, 『梅泉集』 卷一.

75) 黃玆, 『梅泉集』 卷一, 〈和小川論詩六絕 六首〉. 來詩有先從坦道尋門戶莫學東坡學石湖之句.

76) 梅泉의 소식에의 경도는 梅泉의 자서, 梅泉과 당대에 교류하였던 인물들의 증언, 선학들의 연구논문 등 정리할 수 없을 만큼 많다.

77)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68면. 소식시의 호방성 외에, 梅泉은 또 소식의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에 주목했다. 烏臺詩案에 관련된 골격적 소식시에 대해서 “我識先生譏刺意 說詩三百五編來”라고 하여 시경의 譏刺 정신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문자 너머에 있는 소식의 정치, 사회에 대한 비판 정신, 곧 고풍준절을 더욱 배워야 한다고 했다.

상으로 삼아 여러 편의 차운시를 남기기도 하였다. 황정건은 소식을 언급할 때 종종 같이 언급하였다.<sup>78)</sup> 황정건의 시는 고전주의적인 작품을 지녔으며, 학식에 의한 典故와, 수련을 거듭한 措辭를 특색으로 한다. 매천은 소식에게 시정신을 배우고자 하였다면, 황정건에게는 作詩의 자세를 배우고자 하였다. 매천은 여타의 글에서 범성대의 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차운시도 존재하지 않으며, 범성대가 매천의 시적 제재가 된 작품도 없다.

이 작품의 해석은 난해하다. 작품 해석의 키워드인 ‘坦道’가 작품 전체의 시상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작품의 기, 승, 전구를 이끄는 소식이나 황정건에게 이 ‘坦道’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작품의 결구인 ‘坦道何曾在石湖’는 사족이다. 小川이 ‘동과를 배우지 말고 석호의 시를 배워라.’ 했기 때문에 ‘坦道何曾在石湖’라고 시를 마무리 한 것이다. 즉, 梅泉은 ‘坦道’를 거부한 것이다. ‘坦道’를 추구한다면 어찌 범석호에게만 ‘坦道’가 있겠는가 하고 梅泉은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편안한 시인의 길을 가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은 길이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다. 또한 그 길을 거부하고 소식처럼 고풍준절의 시정신을 지니고 살아가겠다는 자기다짐이다. 이것이 수없이 많은 사회시를 썼던 매천의 문학관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和小川論詩六絶>에는 梅泉의 文學觀, 詩論이 깃들여 있다. 정리하면 梅泉은 시인은 그 氣象이 높아야 하고, 그 性情에 따라 개성 있는 시를 써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作詩 방법론에 있어서 修飾과 彫琢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詩語의 중요성과 詩人이라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함을 詩化하여 <和小川論詩六絶>을 창작하였다.

#### 4. 結論

梅泉은 자신의 詩論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 한 것이 크게 세 번 있었다. 그 중 첫 번째 작품은 31세 때인 1885년에 지은 <論詩雜絶> 14수이다. 일반적으로 <論詩雜絶>로 불리지는 이 작품의 정식 題名은 <丁掾日宅寄七絶十四首依其韻戲作論詩雜絶以謝>이다. <論詩雜絶>은 중국 詩人들에 대한 梅泉의 평가이다. 작품에는 총 48인의 詩人이 거론되고 있다. 두 번째로는 <和小川論詩六絶>이다. 梅泉은 1895년 을미년, 41세가 되던 해에 <和小川論詩六絶>을 지었다. <和小川論詩六絶>은 6수로 된 작품으로 중국 詩人들에 대한 梅泉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詩論을 드러낸 작품이다. 세 번째로는 53세 때 작품인 <讀國朝諸家詩> 14수이다.

<和小川論詩六絶>이 창작된 1895년은 梅泉이 가장 왕성하게 시작활동을 하던 시기이자, 古詩의 경도가 나타나던 시기였다. 또한 <和小川論詩六絶>의 대상이었던 小川과 梅泉은 망년지우였으며, 小川은 시재가 뛰어난 詩人으로 唐詩를 숭상하였으며 시풍이 평이, 순정, 전실하였다.

<和小川論詩六絶>에는 梅泉의 文學觀, 詩論이 깃들여 있다. 梅泉은 詩人은 그 氣象이 높아야 하고, 그 性情에 따라 개성 있는 시를 써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作詩 방법론에 있어서 修飾과 彫琢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詩語의 중요성과 詩人이라면 시대정신을 가져야 함을 詩化하여 <和小川論詩六絶>을 창작하였다.

78) 黃玃, 『梅泉集』 卷一, <論詩雜絶 七首>. 嘉隆七子漫縱橫/趙宋無詩太不情/奈此嶙峋坡谷筆/中天萬古兩齊名.

## 參考文獻

- 黃玹, 『文墨萃編』  
黃玹, 『梅泉集』  
黃玹, 『黃玹全集』  
『續修求禮誌』  
洪應明, 『菜根譚』  
奇泰完, 『黃梅泉詩研究』, 1999, 보고서.  
金晉郁, 「梅泉 民俗詩 <上元雜詠> 特性 研究」, 『古詩歌 研究』 제26집, 2010, 한국고시가문학회.  
金晉郁, 「傳統과 近代, 意識과 無意識의 境界點 <園植十五詠> 研究」, 『古詩歌 研究』 제24집, 2009, 한국고시가문학회.  
金晉郁, 「『苟安室新稿』 研究」, 『漢文學報』 제23집, 2010, 우리한문학회.  
김영봉, 「梅泉 시의 배울에 대하여」, 『古詩歌 研究』 제13집, 2004, 한국고시가문학회, 97면.  
김정환, 「梅泉 黃玹의 『苟安室新稿』 研究」, 『漢文學報』 제12집, 2005, 우리한문학회, 436면.  
김정환, 『梅泉詩波 研究』, 경인문화사, 2007, 63면.  
김홍진, 「자연의 재신화화와 탈신화화」, 『한국언어문학』 제58집, 334~ 335면.  
남재철, 「자연시의 의미와 한국에서의 전개 양상」, 『동방한문학』 제33집, 2008, 103면.  
朴奎奎, 「梅泉黃玹의 『論詩絕句』 研究」, 又石大 博士論文, 1995.  
송용구 편저, 『에코토피아를 향한 생명 시학』, 시문학사, 2000, 248~ 249면.  
안대회, 『18세기 한국한시사 연구』, 소명 출판, 1999, 50~ 53면.  
尹景喜, 「黃玹 詩文學研究」, 高麗大 博士論文, 1990.  
이병기, 『梅泉詩 研究』, 1995, 보고서, 207면.  
이병기, 『梅泉黃玹散文研究』, 1995, 보고서.  
이병기 외, 『역주 梅泉 황현 시집』 권 上, 보고서, 346면.  
이정선, 『조선후기 조선풍 한시 연구』, 2002, 한양대출판부, 76면.  
황수정, 「梅泉 황현의 시문학 연구」, 2006, 조선대 박사학위논문.  
프레드릭 제임슨, 여홍상·김영희 공역, 『변증법적 문학 이론의 전개』, 창작과비평사, 1984, 18면.

<Abstract>

### A Study on <Hwasocheononsiyukjeol> of Maecheon Hwanghyeon

Kim, Jin-wook

In this paper, A Study on <Hwasocheononsiyukjeol> of Maecheon Hwanghyeon. Whose name was Hwanghyeon, who killed himself honorably with his four stanza <ChelMyengSi> on the kyeng Swul National Humiliation Day in the fourth of Yung Hyu, which fell on the twenty-ninth of August in 1910.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the period of Choson Dynasty, HwangHyon, Maechon, he

showed his talent by revealing. The materials for writing in his head as things he wanted to forget through the theory on Chinese poems, and ten pieces of poem of Chong Yon II Taek ki chil chol sib sa su Eu Ki Wun Hi Jak Lon si Jab chol I sa, and is to his evaluated poems on Korean Literary poems on.

Though a through study of the Poem, I tried to combine the poetic historical events of grand Poets in Korea since Ko Wun,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currents of Korean People's emotions for the Possibility the traditional contact between the old literature and the modern literature in order to serve the world literature through the national literature with deep research for the fountain-head of the Eastern Study.

I When he became indignant at the successive serious situation of both internal worries and fears of foreign invitation in the gloomy national affairs after the two great revolutions in Im-O and kap-sin, he reprimanded the Present wicked and nation... selling officials by means of writing 『Maychen Ya Lock』 in his distinguished style.

As the indulged in So DongPa and YUK MuKwan's style in making a poem, he rejected the poems of Dong's period, and he preferred DoPo's melancholy instead of Lee Bark's open-minded heart.

He evaluated patriotic poems much higher than those of nature for he his patriotism into a scornful of rice, and he had a different view in appreciating the poems between him and his friend, Wang so-chon and different from Jong Il-Taek's, too.

As the title shows here this brief writing is not Mae-chon's regular Literary theory but a mere writing for amusement and poems written according to the rhymes, so the figures I mentioned here are restricted and the works I dealt with are only a part, too.

In the end I attached fourteen stanza Poem <Hwasocheononsiyukjeol> to the last part of the Paper, but I did not study these Poems in detail, but I regarded them as a guide to the last part of this paper, but I did not study these Poems in details, but I regarded them as a guide to the detailed study in the future.

Key words : Maecheon, Hwanghyeon, Hwasocheononsiyukjeol, Wangsocheon, Maecheon Commentary.

투고자의 소속 ; 순천대학교

주소(e-mail 주소 포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월동 부영아파트 307동 702호

([kimjinug@hanmail.net](mailto:kimjinug@hanmail.net))

연락처 ; 010-8927-5997